

1911년 『성경전서』의 한국 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

소기천*

1. 서론

1911년에 발간된 『성경전서』(이하 『구역』)는 『신약전서』 1권과 『구약전서』 2권으로 발행된, 당시 대영성서공회가 최초로 성경 번역 위원회를 조직하여 번역한 성경이다. 본 논문은 『신약전서』를 중심으로 초기 한국 교회의 문화사적 유산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국역 성경은 이미 19세기 말에 중국에서 번역된 로스 역인 『예수성교전서』가 출판되었지만 『성경전서』는 순수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구역』은 초기 한국 교회에서 한국인의 정서와 정감에 아주 잘 어울리는 번역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한반도의 복음화를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비록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고¹⁾ ‘대개’²⁾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1) 예를 들면, 형상(막 9:2), 용모(눅 9:29)의 경우와 환도(마 26:46, 51-52; 눅 22:36, 38, 52; 요 18:10), 칼(요 18:11)의 경우와 허튼 말(딤후 6:20), 허탄론 이야기(딤후 1:4; 4:7)의 경우와 외인(고전 5:12-13; 엡 2:12, 19; 살전 4:12-13; 5:6), 타인(고전 6:1)의 경우와 교인(마 23:13), 교우(마 23:15)의 경우와 장마물(마 7:25, 27), 홍수(마 24:39)의 경우와 풍증든자(마 4:24), 풍증 들닌 사람(행 8:7), 바람뿜(행 9:33), 반신불슈(막 2:3, 5, 9-10), 반신불슈병(마 9:1)의 경우와 의관(막 15:43), 관원(눅 23:35, 51; 요 7:48; 고전 2:7-8)의 경우와 집스(눅 4:20; 고전 3:5; 골 1:25; 4:7; 딤후 3:8-10, 12-13; 4:6; 롬 16:1; 엡 3:7)의 경우와 병인(막 6:5, 13; 눅 4:40;

와 같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도 수없이 등장하지만, 『구역』은 한국인의 문화적 정감에 잘 어울리는 단어로 번역되었기에 한국 문화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헌이다.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속어³⁾와 원색적인 언어⁴⁾를 사용하여 경전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근엄한 이미지를 벗고서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삶의 이정표와 같은 문서가 되었다.

본 논문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도태로 국역 성경의 농경 문화, 결혼 문화, 장례 문화, 한문 문화, 군사 문화, 생활 문화 등의 초기 한국 교회의 삶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던 당시의 성도에게 정서적으로 공감이가는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당시 혈연 중심의 한국인에게 『구역』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해하여 성경의 세계상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초기 한국

5:20; 요 5:3, 7; 행 4:9; 요 5:5), 병재(눅 5:19), 병든자(막 1:32; 눅 14:21), 병든 사람(행 28:9)의 경우와 문동병(마 8:3; 막 1:40, 42; 눅 5:12-13), 문동병든자(눅 17:12), 문동이(마 10:7; 11:5; 막 14:3; 눅 7:22)의 경우와 쇼경(마 11:5; 15:14; 요 5:3; 롬 2:19), 쇼경들(마 9:28), 소경(마 20:30; 21:14; 23:16-17, 19, 24, 26; 막 8:22-23; 눅 6:39; 14:13, 21), 눈머뭇던이(요 9:17), 눈머뭇다 흐느(요 9:19), 눈머뭇던 사람(요 9:24)의 경우와 저는자(마 21:14; 눅 14:13, 21; 18:36), 절쭈발이(요 5:4)의 경우와 병어리 된자(마 9:32), 병어리(마 9:32; 12:22; 눅 1:20), 귀먹어리(마 11:5; 막 8:37; 눅 7:22),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막 7:32), 혀의 밋친 것(막 8:35) 등의 경우이다.

2) 마태복음 6:13; 14:3; 마가복음 4:25; 누가복음 1:1; 11:3; 12:2; 16:15; 17:21; 20:6; 23:8, 41; 로마서 1:11; 5:10; 7:2, 8, 11, 14-15, 17, 22; 8:2, 5, 13, 19, 24, 38; 9:3, 9; 10:5, 10; 13:3-4; 16:2, 18; 고린도전서 1:25; 10:26; 15:25, 27; 고린도후서 4:11; 5:10; 6:14; 10:4; 13:8; 갈라디아서 6:15; 에베소서 5:9; 빌립보서 1:19, 23; 2:30; 골로새서 1:16, 19; 4:13; 데살로니가전서 1:5, 8; 2:3, 19-20; 3:8; 4:3; 5:5, 7; 데살로니가후서 2:2, 7; 5:2; 디모데전서 2:5; 4:4; 5:15에 등장하는 ‘대개’는 우리말에 ‘대강’이란 단어와는 그 뜻이 다르다.

3) 예를 들면, 계집(요 8:2, 4-5, 9), 계집 으(막 5:42; 눅 8:51; 행 12:13, 15), 계집 종(눅 1:38, 48; 눅 22:56; 갈 4:23, 30-31), 관속(요 7:45-46; 18:3, 18, 22; 행 5:22), 스장이(행 16:23-24, 27, 29, 33, 36), 비 사람(행 27:29), 섬 야인들(행 28:4), 재판소(행 19:38), 공갈(행 4:19, 21), 목구멍(롬 3:13), 외입(눅 15:30), 광패(막 7:22), 불한당(눅 10:30) 등의 표현이다.

4) 예를 들면, 미련(눅 5:22) 밋친(눅 5:22) 등의 표현이다.

교회가 한국인을 도와줘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을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가족에 관한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구역』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연구하고자 한다.

2. 다양한 문화적 배경

갈릴리에 뿌리를 두었던 복음서는 자연히 여러 가지 농촌의 상황을 뒷받침할만한 구절들을 제공해 준다.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하찮은 들풀을 입히는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은 분명히 에텐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던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해준다.⁵⁾ 하찮은 짐승을 먹이고 백합화를 입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화적으로 묘사하여 예수는 평범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더욱더 넘쳐나는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다. “흐믓며 너희까보냐”(눅 12:28 하)와 같은 수사학적 질문⁶⁾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구역』은 당시에 1차 산업업 농업에 기초를 두고 있었던 구한말의 한국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용어를 다음과

5) W. D. Davies and Dale C. Alli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ICC 1 (Edinburgh: T & T Clark, 1988-1997), 655.

6) 이 구절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2:23은 수사학적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대답은 당연히 “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사학은 마태복음 6:25 하반절; 26 하반절; 27; 30 하반절과 누가복음 12:25에 스며있다. 누가복음 12:23은 더는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볼 수 없고, 누가복음 12:24 하반절과 누가복음 12:28 하반절은 종종 의문 부호(?) 대신에 느낌표(!)로 표시될 수도 있다. 참고. David McLain Carr, *From D to Q: A Study of Early Jewish Interpretations of Solomon's Dream at Gibeon*,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Monograph Series 44 (Atlanta: Scholars Press, 1991), 205-210.

같이 적절하게 선택하여 번역을 하였다.

기름(막 14:3-4 옥합에 담긴 것을 향수라고 번역하지 않고, 기름이라고 번역하였다.), 향기름(막 14:8 향수라는 단어 대신에 향기름이라고 번역하였다.), 향기로운 기름(눅 7:46).

곡식(요 4:35-36; 덩전 5:18), 밀 알갱이(고전 15:37), 곡식 알갱이(고전 15:37), 량식⁷⁾, 음식(요 4:31), 젓과 밥(고전 3:2), 식주(롬 16:23 가이오를 식주 곧 가장이라 표현하고 있다.), 조반(요 21:15), 질그릇(고후 4:7), 단 쇠(딤편 4:2), 망(딤편 5:18).

양의 우리(요 10:1), 양의 목자(요 10:2), 문적이(요 10:3), 내 양(요 10:26-27), 시늬(요 18:1), 일군(딤편 5:18), 삭(딤편 5:18), 막닥이(고전 4:21) 신끈(눅 3:16).

등과 해(요 18:3), 라발(고전 15:51-52; 살전 4:16), 초(요 19:30), 평상(행 5:15), 보료(행 5:15), 상(행 9:33-34 여기서는 침대라는 의미이다), 다락(행 20:11), 만물의 썩(고전 4:13).

흙(고전 15:47-49), 던답(막 10:29), 던장(행 2:45; 5:1).

돌매(눅 17:2 연자멧돌을 의미한다), 매(눅 17:35 멧돌을 의미한다), 표대(빌 3:14), 떡 돌비 육비(고후 3:3).

고을(눅 19:17, 19), 쇼읍(행 21:39), 고을 사람(골 4:9, 12).

샤쳐방(막 14:14; 눅 22:11 유월절을 먹을 장소를 일컫는다), 사관(눅 2:7), 과원(요 18:1, 26), 마당(고전 9:24).

다람박질(고전 9:24-26), 다람질(빌 3:14).

7) 요한복음 4:34; 6:31-33, 35, 41, 47, 50-51, 58.

이와 같이 『구역』은 농촌을 배경으로 향토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경험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방식을 터득하여 한국인에게 쉽게 소개하고 있다. 『구역』의 결혼 문화에 관한 이해도 아주 전통적인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당시의 결혼 풍속에서 통용되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소개한다.

본처(막 10:11), 장가드논이(막 10:11), 장가⁸⁾, 식집가논이(막 10:12), 식집⁹⁾.

며느리(마 10:35), 식어미(마 10:35), 장인¹⁰⁾(요 18:13).

당시의 결혼 풍습에 적용된 도덕적 기준은 아주 엄격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구역』에 사용된 것을 보면서 인륜지대사라고 생각되던 혼례에 대해서 초기 한국 교회가 얼마나 원리 원칙을 중시하였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원 리치(롬 1:26-27), 리치(롬 1:26), 오묘한 리치(골 1:26-27), 울코 그름(롬 2:15), 당연혼 레법(롬 12:1).

『구역』의 장례 문화에 관한 이해는 아주 정중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다음의 구절들은 초기 한국 교회가 중시하던 장묘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선지자의 무덤을 짓고 의인의 무덤을 씌이며(마 23:29).

뵈로 싸고 바회로 파서 모든 무덤 속에 뵈셔(눅 23:53).

8) 마가복음 12:25; 누가복음 14:20; 18:27; 고린도전서 7:28.

9) 마가복음 12:25; 누가복음 2:36; 18:27; 고린도전서 7:38.

10) 여기서는 장인어른을 의미한다.

당시의 부정적인 관습을 타파할 것에 대해서 『구역』은 아주 적절한 교훈을 주었다. 다음의 구절은 기독교가 전래되기 시작하던 초기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망녕되고 허튼 말’과 ‘허탄한 이야기’와 ‘무궁한 족보’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들이 있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구역』이 이러한 단어를 선택하여 많은 성도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망녕되고 허튼 말(딤편 6:20), 허탄한 이야기(딤편 1:4; 4:7), 무궁한 족보(딤편 1:4), 변론(딤편 1:4; 딤편 6:20), 경계의 큰 뜻은 사랑(딤편 1:5), 단장(딤편 2:9-10).

이러한 문화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문 문화의 유산은 『구역』이 한글로 번역되면서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던 한문 성경의 유산을 그대로 보여준다. 『구역』에 나타나는 한자 문화적 유산은 다음과 같이 어려운 한자를 섞어서 번역한 경우가 많다.

유구무언(마 22:12), 불학무식(행 4:13), 비몽사몽(행 10:10; 11:4), 우황 만민(행 17:25), 몽학 선생(갈 3:24), 전신 갑주(엡 6:11), 호심경(엡 6:14; 살전 5:8).

이러한 단어들이 당시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흔히 통용되던 한자이 있었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서당을 가지 못해서 배우지 못한 여인들과 천민들은 여전히 『구역』의 여러 구절들을 여전히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의 ‘도’¹¹⁾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비록 마가복음 4:14-20의 ‘도’를 누가복음 8:11-15가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만,¹²⁾ 『구역』이 ‘도’가 지닌 동양적 심층 의미를

11) 마가복음 1:27, 39; 마가복음 4:33; 마가복음 12:14; 16:20; 누가복음 1:2; 9:61; 요한복음 8:30, 37, 43; 갈라디아서 6:6.

12) 4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눅 3:2; 8:11, 21; 11:28)을 자주 사용하

합축하고자 노력한 증거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이 ‘말씀’이라고 번역하면서 괄호에 ‘도’라고 한자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번역이다. ‘오묘한 도’(고전 4:1)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구역』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관해서 아무도 ‘론단’(고전 4:2-4)하지 못할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점에서, 오묘한 도가 지니고 있는 심오한 세계를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다음의 한자 단어들은 『구역』이 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기에 그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척골(막 9:18), 휴셔(막 10:4), 디동(막 13:8), 슈족(눅 24:40), 의문(롬 7:6; 고후 3:7; 골 2:20-21, 23), 미말(고전 4:9), 축슈(고전 4:12), 곡학(골 2:8).

이런 연유 때문에 한자 대신에 순 한글로만 표기한 『구역』은 국한문 혼용 성경의 출판의 시대를 앞당겼을 것이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당시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단어들이 수없이 등장한다.

군사 용어는 조선 말기에 어수선하던 민심이 공감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소재였다. 청일전쟁(1894년)과 러일전쟁(1904년)에서 승리한 일본은 급기야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하여 한국을 강점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이후에, 구한말의 흥흥한 풍문과 “의지할 곳 없는 민심”¹³⁾은 초기 한국 교회 성도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회개 기도 운동을 가져왔다.¹⁴⁾ 다음의 단어들은 초기 한국 교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을

면서 말씀을 가장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 13)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 교회의 형성: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리더십: 제1, 2회 소망신학포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집위원회, 2006), 447.
- 14) 김인수는 2007년 2월 28일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채플 설교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비정치화’ 혹은 ‘몰역사화’의 측면으로 몰아가는 입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참고, 그의 논문, “미국 대각성 교회 운동과 한국 교회 1907년 대부흥 운동과의 비교연

것이다.

병괴(마 10:34; 요 18:3; 고후 6:7), 란막 15:7 난리라는 뜻이다.), 란리와 요란(눅 21:9), 탐지군(눅 20:20, 26), 령관(눅 22:4, 52).

1907년 평양 사경회¹⁵⁾ 동안 종말론적으로 임박한 심판 사상에 직면하게 되자, 각종 개인적인 죄목들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일이 초기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다. 배위량(W. M. Baird)에 의하면, “살인과 간음” 뿐만 아니라, “방화, 술주정, 도둑질, 강도, 거짓말 등”과 더불어 “시기, 질투, 멸시, 미움 등” 온갖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였다.¹⁶⁾ 스왈론(W. L. Swallen)도 당시의 공개적인 고백 목록들을 “사기, 교만, 세상욕, 음란, 탐심, 미움, 질투 등”이라고 제시하였다.¹⁷⁾ 무어(J. Z. Moore)에 의하면, 당시에 공개적으로 고백한 회개 중에는 “조혼, 교육, 부정, 주초 문제 등”¹⁸⁾도 있다. 이러한 회개는 ‘통회 자복’의 성격이었다.¹⁹⁾

한국인에 의해 성경이 번역되어 반포된 초기 한국 교회는 성경을

구,” 『20세기 개신교 신앙부흥과 평양 대각성운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63.

15) 1907년 평양 사경회에 관하여 흔히 대부흥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 혹은 대부흥 사경회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이는 모두 후대 학자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반영된 표현이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사경회라고 불렀다. 당시 선교사들은 영어로 “bible conference, bible study class” 혹은 이를 줄여서 “bible class”라고 불렀다. 현재 100세로 최고령 목사인 방지일은 “전에는 사경회라 하여 성경공부가 주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사경회라는 말은 없어지고 심령부흥회라는 말이 자리를 잡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말씀 공부는 없어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일만 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하였다(참고, 김혜숙, 「편집후기,」 「새가정」 54:588 (2007), 115).

16) W. M. Baird,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The Korea Mission Field* 3:5 (1907), 66.

17) W. L. Swallen, “God’s Work of Grace in Pyeng Yang Class,” *The Korea Mission Field* 3:5 (1907), 79.

18) J. Z. Moore, “The Great Revival Year,” *The Korea Mission Field* 3:8 (1907), 116.

19) Charles F. Bernheisel, *The Rev. Charles F. Bernheisel’s Missionary Diary*; 『편하설 목사의 선교일기』, 김인수 역 (서울: 쿤란출판사, 2004), 302.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이였다. 이러한 열심이 사경회의 출발이였다. 곧 초기 한국 교회는 국가적인 격변기에 사경회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적인 회개를 통한 교회 갱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러한 회개에는 초기 한국 교회에 만연했던 조상 제사도 반성하게 하였다. 『구역』에서 제사 용어는 다음과 같이 초기 한국 교회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로 당시 한국인들에게 소개되었다.

진설흔씩(마 12:4; 막 2:26; 눅 6:4), 보양(엡 5:39), 교의(막 11:15), 멸망 식힐 뉘운 물건(막 13:14), 일월성신(눅 21:25), 연보²⁰⁾, 연보케(막 12:43; 눅 21:1에서 연보케에 던진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향속(막 16:1 향품이라는 뜻이다.), 향단(눅 1:11), 례(갈 2:9), 전례(엡 2:15), 절기와 월삭(골 2:16).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각종 계량과 금전 거래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제 용어로 『구역』에 나타난다.

닷량중 두량중 흘량중(마 25:15-30), 은돈 열렸(눅 15:8), 은 열근(눅 19:13), 은 닷근(눅 19:18), 은 흘근(눅 19:16, 18), 은홍소(눅 19:23), 돈 혼푼(눅 20:24).

술에 관한 용어도 서민들이 쉽게 경험하는 소재들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구역』에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술(마 11:19; 요 3:10; 딤편 3:3), 포도주,²¹⁾ 포도즙(눅 22:18), 쇼쥬(눅 1:14), 잔(눅 22:20; 고전 10:16 여기서 잔은 포도주를 상징한다; 눅 22:41 여기서 잔은 고난을 상징한다).

20) 고린도전서 16:2; 고린도후서 8:3, 10; 9:1, 5, 11-14.

21) 누가복음 1:14; 요한복음 2:3, 9; 4:46; 디모데전서 5:23.

『구역』에서 생활도구에 관한 용어도 다음과 같이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초기 한국 교회가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단어로 번역되었다.

소반,²²⁾ 광जू리(고후 11:33), 칼(요 18:11), 환도,²³⁾ 몽치(마 26:46; 눅 22:52), 칼 낚(눅 21:24), 전딤(눅 22:35-36), 쥬머니(눅 22:35-36).

조선 말기의 왕정 제도 하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도, 비록 초기 한국 교회에서 복음이 주로 서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였다.

님군(마 25:40, 45), 세상 님군(요 14:30; 행 4:26), 제후(행 4:26), 대 켈(눅 7:2), 궁(눅 11:21), 나라 봉흙(눅 19:12), 봉흙(눅 19:15).

조선 왕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와 종말론적인 구원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구절들도 『구역』에 나타난다.

님군 그리스도(눅 23:2), 왕 노릇(눅 19:15).
쥬의 일흠으로 오시는 왕(눅 19:38 종말론적인 구원자를 의미한다.).

시간 개념도 전통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데 익숙한 문화에서 오는데, 다음과 같은 표현은 초기 한국 교회에서 통용되던 것들이다.

미시말(마 27:45-46; 막 15:34), 밤 스경(막 6:46), 스시초(행 2:15), 신시초(행 3:1).
절일(마 27:62), 칠일 첫날(눅 24:1), 닐헤 중 첫날(요 20:1, 19).

22) 마태복음 14:10; 23:25-26; 마가복음 6:25, 28-29; 누가복음 11:39.

23) 마태복음 26:46, 51-52; 누가복음 22:36, 38, 52; 요한복음 18:10.

이러한 절기에 관해서 초기 한국 교회가 24절기와 각종 민속 명절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구역』의 절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초기 한국인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갔을 것이다.

3. 등장인물들

『구역』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한다. 많은 등장인물들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단어로 번역되었기에, 초기 한국 교회에서 『구역』이 혈연 중심의 한국 문화적 특징에 거부감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접착점을 만들어 주었다.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다.

안희,²⁴⁾ 덩혼훈 안희²⁵⁾(눅 2:5), 남편,²⁶⁾ 지아비.²⁷⁾

부친,²⁸⁾ 아버,²⁹⁾ 어머니(갈 1:15; 4:26; 엡 6:2), 모친,³⁰⁾ 어미(마 10:37; 14:11; 15:4), 지어미(엡 5:22-25, 28, 31, 33), 이모(요 19:25).

동생들,³¹⁾ 누의(마 12:50; 막 3:35), 누의들(요 11:3), 아오들(행 1:14),

24) 마태복음 1:6, 20; 5:31; 마가복음 10:11-12; 누가복음 2:5; 고린도전서 7:3-4, 11-12, 14, 16, 27, 32, 39; 9:5; 디모테전서 3:2; 5:9.

25) 여기서는 약혼한 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바르다.

26) 마태복음 1:16, 19; 고린도전서 7:2-4, 10-14, 16, 34, 39; 14:35; 갈라디아서 4:27; 디모테전서 3:2; 5:9.

27) 마가복음 10:12; 사도행전 5:9; 로마서 7:2-3; 고린도후서 11:2; 에베소서 5:22-25, 28, 33.

28) 마태복음 2:22; 4:21-22; 누가복음 15:17-18, 20-22, 28-31.

29) 마태복음 10:21, 37; 15:4; 요한복음 8:41, 43-44; 고린도전서 4:15; 데살로니가전서 2:11.

30) 마태복음 1:18; 2:10, 13, 20, 22; 12:47-50; 13:55; 마가복음 3:31-35; 10:30; 요한복음 19:25-26; 사도행전 1:14.

31) 마태복음 12:46-49; 마가복음 3:31-35; 14:12; 15:32.

오라비(요 11:2, 19, 21, 23, 32), 형제나 즈미(막 10:29), 말재 아들(눅 15:12-13), 맏 아들(눅 15:25), 아들(눅 15:21, 23, 30-31).

이러한 가족들에 관한 호칭은 초기 한국인이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를 통하여 기독교의 새로운 신앙 세계를 이해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구역』에서 이러한 혈연 중심적인 한국 문화는 2인칭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아주 특수한 번역 형태를 낳았다.

그딕(마 3:14), 쥬(마 16:16).

이상의 2인칭은 상대방을 직접 부르지 않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데오빌로를 ‘너’(눅 1:4)로 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각하로 부른 후에 ‘너’라는 2인칭을 사용하는 용례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경우는 3인칭의 경우에서도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이 그 의미도 사뭇 다르다.

동싱³²(마 7:3-5), 동싱³³(마 25:40; 28:10; 눅 6:41-42; 12:13; 요 20:17).

『구역』에 나타나는 직책과 남녀 호칭은 당시의 문화적 이해를 엿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타와 같은 것이다. 한편, 『구역』에 등장하는 직책은 다양하다.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직책을 통하여 초기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 특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박사(마 2:1), 백부장(마 8:13), 대부와 천부장(막 6:21), 감스 빌나도 (마 27:2), 감스³⁴ 의관(막 15:43), 관원(눅 23:35, 51; 요 7:48; 고전

32) 여기서의 상대방이란 뜻이다.

33) 여기서의 형제라는 뜻이다.

34) 마태복음 27:11, 19, 23, 27; 28:14; 마가복음 15:8; 누가복음 2:1; 3:1; 사도행전

2:7-8), 공회의 관원(눅 23:51), 유대 관원(요 3:1), 각하(눅 1:3), 유스(행 7:35; 16:19; 23:5), 변스(고전 1:20), 선빅(고전 1:20), 법관³⁵⁾, 아전(행 16:35), 고을 관장(행 17:8).

집스³⁶⁾, 집스 된 우리 즈딕 뵈뵈(롬 16:1), 복음의 집스(엡 3:7), 감독(딤후 3:1), 감독의 직분(행 1:20), 스도의 직분(행 1:25), 스도와 반렬(행 1:26).

다른 한편, 『구역』에 나타나는 남녀의 호칭도 다양하다. 다음과 같이 『구역』에 등장하는 남녀에 관한 호칭을 통해서 초기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세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사나회,³⁷⁾ 신랑(마 25:1, 5), 소년(막 14:51; 막 16:6; 눅 7:14).

녀인³⁸⁾, 녀인들(눅 24:10), 녀즈(막 6:28; 딤후 5:16), 귀흔 녀인(행 13:50; 17:4), 즈유흔는 녀인(갈 4:31), 으희 빈 녀인(살전 5:3), 으희 빈 자와 젓 먹이는 녀인(눅 21:23).

동정녀³⁹⁾(마 1:23), 처녀(마 25:1, 7, 11; 눅 1:27, 29), 동정녀⁴⁰⁾, 정결흔 동녀(고후 11:2).

츄 과부(딤후 5:3, 5, 16), 음부(롬 7:3), 창기(고전 6:16).

13:12; 24:10.

35) 누가복음 18:2, 6, 18; 사도행전 7:35; 16:22, 36, 38.

36) 누가복음 4:20; 고린도전서 3:5; 골로새서 1:25; 4:7; 디모데전서 3:8-10, 12-13; 4:6.

37) 마태복음 2:16; 고린도전서 11:3-4, 7-9, 11-12, 14.

38) 마태복음 5:32; 마가복음 5:25, 33; 7:25-26, 28, 30; 12:22; 마가복음 14:3; 16:8, 11; 누가복음 1:42, 45; 누가복음 7:28; 누가복음 8:43; 13:12, 16, 21; 15:8; 24:5; 요한복음 2:4; 4:9, 11, 15, 17, 19, 21, 25, 27-28, 39, 42; 요한복음 16:21; 19:26; 20:13-14; 16:13; 17:34; 로마서 1:26-27; 고린도전서 7:1, 10, 13; 11:3, 5-13, 15; 14:35; 갈라디아서 4:22-23, 30; 디모데전서 2:14; 4:7; 5:2.

39) 여기서는 예수의 모친을 가리킨다.

40) 누가복음 2:36; 사도행전 20:9; 고린도전서 7:25, 28, 34, 36, 38.

동모(마 11:16; 24:49; 요 11:16), 우리 친구(요 11:11), 동학혼 사름(행 13:1).

인종적 칭호도 다양하다. 특히 한민족이 단일 민족 국가로서 오랫동안 그 전통성을 유지해오고 있던 조선 말기의 상황에서, 『구역』이 다양한 인종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이방(행 4:25; 갈 1:16; 2:9), 이방 사름⁴¹⁾, 다른 이방 사름(롬 1:14), 너희 이방 사름(롬 11:13), 모든 이방 사름(롬 16:27), 야만(롬 1:14), 외방 길(마 10:4), 외인(고전 5:12-13; 엡 2:12, 19; 살전 4:12-13; 5:6), 타인(고전 6:1), 오랑캐(고전 4:11), 이방에 잇는 유대인(행 21:21), 족속(행 4:25), 할례 맞은 사름(행 11:2), 할례 맞지아니혼 사름(행 11:3), 본국 사름(고후 11:26), 유대 풍속(갈 2:14).

당과에 관한 언급은 조선시대에 사색당과에 젓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 한국 교회의 성도가 정서적으로도 아주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구역』에 유대 종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한다.

당 짓는 것(고후 12:20; 갈 5:20), 바리시교인⁴²⁾, 바리시교인들⁴³⁾, 바래시교장(눅 14:1), 사두기교인⁴⁴⁾, 사두기교인들(마 22:23, 34), 헤롯의

41) 마태복음 4:15; 10:18; 18:17; 누가복음 17:18; 18:32; 21:24; 사도행전 4:27; 9:15; 11:1, 18; 13:47-48; 20:11; 26:16; 로마서 2:24; 3:29; 고린도전서 1:23 고린도전서 1:22-24는 유대 사람,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을 아무 구별 없이 칭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5:1; 10:20; 12:2; 고린도후서 11:26; 갈라디아서 3:7; 에베소서 3:1; 4:17; 데살로니가전서 2:16; 4:5.

42) 마태복음 5:20; 9:14, 34; 12:14, 24, 38; 16:1, 11-12; 22:41; 23:13, 26; 27:62; 마가복음 2:16, 24; 3:6; 6:3, 5; 마가복음 8:11, 15; 마가복음 12:13; 누가복음 5:17, 21; 6:2, 7; 7:30, 36-37, 39; 11:38-39, 42-43, 53; 12:1; 13:31; 14:2; 16:14; 17:20; 18:10-11; 19:39; 요한복음 1:24; 3:1; 4:1; 7:32, 45, 47-48; 8:3; 9:13; 11:45; 12:42; 18:3; 사도행전 23:6, 9; 26:5; 빌립보서 3:5.

43) 마태복음 9:11; 12:2; 15:12; 22:15, 34; 23:23, 27, 29; 요한복음 11:47, 57.

당(마 22:16; 막 12:13), 이스라엘 족속의 로회(행 5:20).

『구역』에 병인과 병명에 관한 언급은 아주 다양하다.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똑같듯이, 초기 한국 교회에서 병인과 병명은 많은 혼란 속에서 다음과 같이 『구역』에 다양하게 등장한다.

병인⁴⁵⁾ 설흔어똥히 된 병인(요 5:5), 병자(눅 5:19), 병든자(막 1:32; 눅 14:21), 병든 사람(행 28:9), 병신(눅 14:13), 병 나온 사람(요 5:10).

샤귀들닌자(마 4:24; 9:33; 막 1:32), 샤귀들닌 사람(마 9:28), 샤귀들닌덧 사람(막 5:16, 18), 샤귀들닌 여러 사람(마 8:16), 귀신들닌 사람(막 5:2), 밋친 사람(행 26:25), 간질흐는자(마 4:24).

풍증든자(마 4:24), 풍증 들닌 사람(행 8:7), 바람병(행 9:33), 반신불슈(막 2:3, 5, 9-10), 반신불슈병(마 9:1).

쇼경,⁴⁶⁾ 쇼경들(마 9:28), 소경,⁴⁷⁾ 눈머러던이(요 9:17), 눈머러다 흐는자(요 9:19), 눈머러던 사람(요 9:24).

저는자⁴⁸⁾, 절쑥발이(요 5:4), 안즌방이(마 11:5; 눅 7:22; 행 3:2; 8:7; 14:8).

병어리 된자(마 9:32), 병어리(마 9:32; 12:22; 눅 1:20), 귀먹어리(마 11:5; 막 8:37; 눅 7:22), 귀먹고 말이 어눌흔 사람(막 7:32), 혀의 밋친 것(막 8:35), 병어리 곱흔 우상(고전 12:2), 샤귀들너 눈 멀고 병어리 된자(마 12:22).

44) 마태복음 16:1, 11-12; 마가복음 12:18; 누가복음 20:27; 사도행전 4:1; 5:17; 사도행전 23:7-8.

45) 마가복음 6:5, 13; 누가복음 4:40; 5:20; 요한복음 5:3, 7; 사도행전 4:9.

46) 마태복음 11:5; 15:14; 요한복음 5:3; 로마서 2:19.

47) 마태복음 20:30; 21:14; 23:16-17, 19, 24, 26; 마가복음 8:22-23; 누가복음 6:39; 14:13, 21.

48) 마태복음 21:14; 누가복음 14:13, 21; 18:36.

흔 편 손 므른 사람(막 3:1), 손 므른 사람(막 3:3), 올흔 손 므른 사람(눅 6:6), 혈기 므른 사람들(요 5:4).

문동병든자(눅 17:12), 문동이,⁴⁹⁾ 문동병(마 8:3; 막 1:40, 42; 눅 5:12-13).

고창병(눅 14:2), 리질(행 28:8), 열병(눅 4:38; 행 28:8), 혈루증(마 9:20; 막 5:25), 판수(행 13:11).

안수 기도하는 일은 초기 한국 교회에서 커다란 과장을 불러온 것이 분명하다. 야고보서 5:13-16은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을 일깨우고 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모습은 안수와 안찰을 의미하는 행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안찰하는 사람(행 8:19), 손 언질 재(딤후전 4:14).⁵⁰⁾

이러한 행동은 안수와 안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한 초기 한국 교회에서 복음 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구역』에 언급된 이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동물과 귀

49) 마태복음 10:7; 11:5; 마가복음 14:3; 누가복음 7:22.

50) 손을 얹어 치료하는 능력이 전이된다. 마가복음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벳새다에 이르렀을 때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에게 맹인을 만지기를 간청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는 만짐을 통해 병자를 치유한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 예수는 손을 내밀어 한 나병환자를 고쳤고(1:41),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았고(5:27), 예수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그의 혀에 손을 대어 고치셨다(7:33). 또한 마가는 두 개의 예수 치유에 관한 요약문에서 예수의 만짐을 말한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물려왔음이다.”(3:10).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6:56)

신에 관한 언급이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귀신을 ‘샤귀’라 부르고, ‘샤귀 왕’을 ‘귀왕’이라고 부르고, 풍랑 이는 바다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요물’로 표현한 것은 아주 흥미로운 번역이다. ‘악귀’와 ‘아비 악귀’라는 표현도 특이하다.

귀신(마 12:45; 눅 9:42; 10:20), 귀신 공경(행 17:22), 귀신이 잡으니(눅 9:39), 더러운 귀신(마 10:1; 막 3:11), 병어리와 귀먹어리 귀신(막 9:25), 병어리 샤귀(눅 11:14), 샤귀,⁵¹⁾ 사귀들(막 5:12), 샤귀 왕(마 9:34; 막 3:22; 눅 11:15), 귀왕(마 12:24), 바알세불(마 12:24; 눅 11:15, 19), 요물(마 14:26), 악귀(눅 8:2), 아비 마귀(요 8:43).

신정론과 관련하여 토속 신앙과 민간 신앙에 널리 퍼져있던 용어들을 주저 없이 선택하여 초기 한국 교회는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며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서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4. 하나님의 가족

『구역』은 초기 한국 교회에서 한국인의 혈연 문화와 가족 이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문화는 『구역』에서 혈육에 대한 뜨거운 정이 ‘육신 섬김’(롬 15:27)이라는 구체적인 정을 나누는 일로 표현되었다.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라 하는 것”(롬 15:25)과 “그리스도의 뜻터온 복”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바울의 계획(롬 15:29)은 모두 이러한 혈육의 정을 바탕으로 복음을 이해하려는 한국인

51) 마태복음 8:31-33; 9:33-34; 10:7; 11:18; 12:24, 27-28; 17:18; 마가복음 1:34; 3:15; 7:26, 29-30; 마가복음 9:26; 16:9, 17; 누가복음 4:33, 35; 8:2, 27, 29-30, 32-33, 36; 9:1, 42, 49; 10:17; 11:14-16, 18-20; 13:32; 요 7:20; 8:52; 사도행전 16:18; 고린도전서 10:20-21.

의 정서에 잘 부합되는 것이었다.

『구역』은 ‘집’에 관해 자연스럽게 언급하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밀한 공간인 집은 다음과 같이 『구역』에 다양하
게 나타난다.

집,⁵²⁾ 집안 사람(딤후전 5:8), 고향(마 13:58; 막 6:1), 고향과 친척과
집안(막 6:4).

이뿐만 아니라 집을 세우는 데 요긴하게 쓰이는 다양한 건축 용어도
『구역』에서 다음과 같이 초기 한국 교회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단어
들로 선택되었다.

집(마 7:26-27; 눅 6:48-49), 주초(눅 6:48), 성이나 집(마 12:25 단순
히 성과 집으로 묘사), 성중에 거리와 골목(눅 14:21), 미석(눅 21:5),
장인(막 12:10; 눅 20:17; 고전 3:10 건축가란 의미이다.), 장인들(행
4:11 건축가들이란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 『구역』에서 하나님은 자연계와 인간 세계 속에서 평
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런 분으로서 묘사된다. 사람들이
동네와 집 근처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친근한 동물에 관해 언급한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소,⁵³⁾ 라귀,⁵⁴⁾ 라구 삭기(마 21:1, 3), 비둘이(막 11:15; 요 2:16), 독
슈리(눅 17:36), 즐싱(행 11:6), 버리지(행 11:6), 새(마 6:26), 춤새(눅
12:7), 가마귀(눅 12:24).

52) 마태복음 13:58, 디모데전서 3:12, 14; 5:2, 16.

53) 누가복음 14:4; 디모데전서 5:18, 도야지(마 9:30, 32-33; 막 5:11-13, 16; 눅
8:32-33).

54) 마태복음 21:1, 3; 마가복음 11:7; 누가복음 14:4.

초기 한국 교회가 농촌을 배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서 이와 같은 동물들이 『구역』에 등장하여 독자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시대 때부터 불결한 동물로 여겨온 ‘가마귀’(레 11:15; 신 14:14. 참고 바나바 서신 10:1, 11)⁵⁵⁾를 대신하여 “공중에 나는 새”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마 6:26), 이는 마태복음 6:30에서 ‘들풀’과 대조를 이루도록 마련된 마태복음 특유의 대칭적인 편집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불결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마귀’를 돌보신다(시 147:9; 욥 38:41).⁵⁶⁾ 집 둘레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동물들은 『구역』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조연들이다. 이러한 조연들이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한다.

『구역』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이해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개념에 친숙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복음의 영향이 크다. 마가복음에는 ‘오이코스’(οἶκος) 또는 ‘오이키아’(οικία)가 23회나 등장할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마가복음에서 집은 물리가 있는 장소(7:24), 제자들을 무리에서 분리하는 장소,⁵⁷⁾ 제자들을 교훈하는 장소,⁵⁸⁾ 교회로서의 공동체(11:17; 13:35)를 의미한다. 베스트는 마가복음에서 ‘집’을 ‘교회’ 개념으로 간주한다.⁵⁹⁾ 그러나 베스트가 교회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분류한 구절 중에서 네 구절⁶⁰⁾은 ‘가족’의 의미로 설명되

55) W. D. Davies and Dale C. Alli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ICC 3 (Edinburgh: T & T Clark, 1988-1997), 648.

56) Joachim Jeremias, *Die Sprache des Lukasevangeliums: Redaktion und Tradition im Nicht-Markusstoff des dritten Evangelium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217.

57) 마가복음 10:10; 3:20; 7:17; 9:28.

58) 마가복음 9:33; 10:10; 3:20; 7:17; 9:28.

59) E. Best, *Following Jesus: Discipleship in the Gospel of Mark* (Sheffield: JSOT Press, 1981), 227.

60) 마가복음 2:11; 5:19; 6:4; 8:26.

어야 한다. 이중에서 세 구절⁶¹⁾은 예수가 병자를 고친 후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여기서 집은 일차적으로 가족을 의미한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그의 사역의 가장 초기에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레위를 부른다.⁶²⁾ 예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도 세 군데⁶³⁾ 나온다. 모두가 가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면 그를 붙들러 왔으며,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지폄다고 말한다. 이러한 구조는 예수의 가족들과 예수를 비난하는 서기관들을 같은 부류로 보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⁶⁴⁾ 이 구조는 예수가 자신의 진정한 가족에 대해 정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3:35).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종말적인 새로운 가족으로 대체된다. 마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를 위해 가족을 재규정한다.⁶⁵⁾ 제자들을 특징지어 주었던 가족과의 단절의 형태는 예수 자신에 의해 수립되었다. 그 결과는 제자들을 하나의 고립된 개인들로 끊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새로운 동질성 속에 가담시킨다. 복음에 헌신한 자들이 당한 권리 박탈이 새 공동체에서 보상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현실 속에서 박해를 견하여 받는다(10:30b).⁶⁶⁾ 이러한 가족 개념은 『구역』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첫째,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초기부터 『구역』은 한국 문화에 아

61) 마가복음 2:11; 5:19; 8:26.

62) 마가복음 1:16-18, 19-20; 2:13-14.

63) 마가복음 3:20-21, 31-35; 6:1-6a.

64) C. Osiek and D. L. Balch, *Families in the New Testament Worl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127.

65) H. C. Kee, *Community of the New Age: Studies in Mark's Gospel*; 『새 시대의 共同體: 마가복음 연구』, 서중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156.

66) 참고, 김민철, “벧새다 맹인 치유 이야기(막 8:22-26)에 대한 성서 신학과 현대 의학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0), 17, 55-62.

주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인 이러한 성경적인 가족 개념과 전통적으로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 잘 어울리면서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신학적으로 확립하였다. 물론 육신의 부친⁶⁷⁾ 이외에 새로운 하나님을 ‘턴부’(마 6:14, 26; 18:35)라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⁶⁸⁾로 부르는 일은 초기 한국 교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특히 예수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로 호칭한 것은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인데, 구역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아바 아버지(막 14:36; 갈 4:7) 아바라호는 아버지(롬 8:15)

하나님을 아버지와 더불어서 아바로 호칭한 『구역』의 번역은 하나님을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존재로 부르던 관행을 넘어서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이로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의 독특한 신관을 잘 표현한다. 『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마 13:42)로 이해하면서도 그 나라가 이 세상이나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곧 ‘턴국’⁶⁹⁾으로 이해한 것도 아주 중요한 인식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나라’(빌 3:20)로 부르며 하나님과 그 자녀인 성도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이해한 것도 한국 문화의

67) 에베소서 6:2는 유일하게 육신의 부친을 일컬어서 ‘아버지’로 호칭한다.

68) 마태복음 5:45; 48; 6:1, 5-6, 8-9, 13, 15, 18; 7:11, 20; 10:29, 32-33; 11:26-27; 12:50; 16:17, 27; 18:19; 20:23; 23:9; 28:19; 마가복음 8:37; 누가복음 2:48; 11:2; 12:32; 16:30; 23:34, 46; 요 1:18; 2:16; 3:35; 4:23-24; 5:17, 19-23, 26, 30, 36-37, 43, 45; 6:27, 46, 57, 65; 8:16, 19, 27, 38, 41, 49, 54; 10:15, 17-18, 25, 29-30, 32, 36-37; 11:41; 12:49; 13:1, 3; 14:2, 7, 9-13, 15, 20, 23, 25, 28, 31; 15:1, 8-10, 16, 24, 26; 16:3, 10, 23, 25-28, 31; 17:2, 4-15, 17-18, 21-26; 20:17, 21; 사도행전 1:4, 7; 로마서 1:7; 6:4; 고린도전서 1:3; 8:6; 15:24; 고린도후서 1:2-3; 11:31; 13:13; 갈라디아서 1:3; 4:7; 에베소서 1:3, 17; 3:15; 4:6; 에베소서 6:23; 빌립보서 1:2; 4:20; 골로새서 1:2, 12, 19; 데살로니가전서 1:2; 3:11; 데살로니가후서 1:1-2; 디모데전서 1:2.

69) 마태복음 13: 11, 24, 38, 45, 47, 51; 20:1; 24:14; 25:1, 14.

특징 속에 녹아 있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해준다.

둘째, 예수에 관한 칭호에서 ‘인자’(마 17:27)와 더불어서 ‘하느님의 아들’(마 16:16)이란 칭호는 예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다. 인자 기독교 칭호와 더불어서 ‘아기’(마 2:8-10, 13, 20)와 ‘목숨의 아들’(마 13:55)이란 칭호는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면, ‘아들’⁷⁰⁾이란 칭호는 신적인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셋째, 성령을 ‘아버지의 성신’(마 10:20)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성령을 일컬을 때, 예외 없이 ‘성신’⁷¹⁾이라고 호칭하는데, 이것은 초기 한국 교회가 성령을 하나님의 신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성령을 하나님의 신으로 이해한 것과 관련하여 『구역』이 다음과 같이 성령을 표현한 것은 아주 특징적인 번역이다.

하느님의 신(고전 7:40), 하느님씨로 온 신(고전 2:12).

이러한 성령 이해는 한국에서 강신 개념으로 성령을 이해하였던 문화적 특징과 어울리면서 초기 한국 교회의 성령 이해를 도왔을 것이다. 『구역』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한국의 민속 신앙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여러 신 분변흠’(고전 12:10)과 ‘지금 일하는 신’(엡 2:2)이신 성령을 올바르게 이해할 것을 가르친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70) 마태복음 1:21, 23, 25; 11:27; 요한복음 3:36; 5:19-23, 25-26; 갈라디아서 1:16; 4:6.

71) 마태복음 12:28; 28:19; 마가복음 1: 10, 12; 3:29; 누가복음 1:34, 67; 2:27; 3:16, 22; 4:1; 12:10, 12; 요한복음 20:22; 사도행전 1:2, 16; 2:4, 17-18; 2:33, 38; 3:8; 5:3; 6:2; 7:55; 8:19; 10:38, 44; 11:12, 15-16, 24; 13:2-3, 9; 16:6; 19:5; 20:23; 로마서 5:5; 8:23, 26-27; 9:1; 15:16; 고린도전서 2:4, 10, 14-15; 3:1; 12:3, 8-9, 11, 13; 14:37; 고린도후서 1:22; 3:6, 8; 5:5; 6:6; 갈라디아서 3:3, 5, 14; 4:28; 5:5, 16-18, 22, 25; 6:1, 8, 13; 에베소서 2:18, 22; 3:5; 4:3; 4:30; 6:17; 빌립보서 1:19; 2:1; 3:2; 골로새서 1:8; 데살로니가전서 1:6; 5:19; 데살로니가후서 2:13.

서 성령을 ‘예언하는 자의 신’(고전 14:32)과 ‘지혜와 목사의 신’(엡 1:17)으로 이해하면서, 초기 한국 교회에서 성령은 각종 우상들과 사신들을 구별하는 분으로 인식되었다. 한국의 민속 신앙에 널리 퍼져 있던 주문과 귀신을 부르는 이상한 언어와 혼동될 수 있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구역』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방언에 관하여, ‘방언 번역’(고전 12:10)과 ‘통변’(고전 12:30; 14:5, 13, 26-28)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번역은 기독교적 성령 이해를 확고한 신학적 질서 위에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5. 결론

1911년 국역성경은 『신약전서』 1권과 『구약전서』 2권으로 발행된 당시 대영성서공회가 최초로 성경 번역위원회를 조직하여 번역한 성경이다. 본 논문은 『신약전서』를 중심으로 초기 한국 교회의 문화사적 유산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역성경은 이미 19세기 말에 중국에서 번역된 로스 역인 『예수성경전서』가 출판되었지만 순수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구역』이 완곡한 어법으로 초기 한국 교회가 기독교 운동을 전파하면서 한국인이 문화적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를 한 일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바울이 옥에 갇힌 일을 ‘내가 맛난 일’(빌 1:12)로 번역한 것은 무고한 옥살이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초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배려이다.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청중들에게 독설을 퍼부을 때도, ‘독사의 종류들아’(마 3:7; 12:34; 눅 3:7)라는 완곡한 어법으로 번역을 한 것도 이 같은 경우이다.

한편, 『구역』은 축약형을 자주 사용하여 초기 성경 번역의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란 표현을 아주 빈번하게 ‘예수-’⁷²)로 표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예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축약형이 나타난다.

쥬⁷³⁾ 그리스도-나사렛 예수-(행 6:14).

다른 한편, 이러한 축약 형태는 예수에게 국한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아주 이례적인 인물들까지 확대한다.

시몬 베드로-(마 16:16) 베드로⁷⁵⁾ 도마-(요 14:5) 모세-(마 22:24) 빌라도⁷⁶⁾ 감스-(마 27:23).

72) 마태복음 3:15; 4:1, 4, 7, 17; 8:1, 3-4, 10, 13-14, 20, 22, 26; 9:1, 4, 9-10; 9:18, 22-23, 30; 11:1, 4, 25; 12:1-3, 11, 15, 46; 13:1-3, 11, 36, 52-53, 57; 14:14, 16, 23, 25, 27, 31; 15:10, 13, 16; 21, 23-24, 29, 32, 34; 16:2, 6, 8, 17, 21, 23-24; 17:7, 9, 11, 13, 17-18, 20, 22, 25-26; 18:2, 22; 19:1-2, 4, 8, 11, 14, 17-18, 21, 23; 20:17, 21, 23, 25, 34; 21:1, 7, 10, 12, 16, 18, 21, 23-24, 27, 31, 42; 22:1, 18, 21, 29, 41, 43; 24:1, 3-4; 26:1, 6, 10, 26, 31, 50, 52, 55, 63-64; 27:11, 46, 50; 28:9-10, 18; 마가복음 1:9, 14, 17, 25, 31, 35, 41, 45; 2:1, 3, 5, 13, 17, 19, 23, 25; 3:3; 마가복음 4:33, 38; 5:2, 8, 19-21, 30, 34, 36; 6:1, 4, 34, 37, 48; 7:24, 29, 31, 36; 8:1, 12, 15, 17, 23, 26, 33; 9:19, 23, 29-30, 35, 39; 10:1-2, 5, 18, 21, 23-24, 27, 29, 32, 38; 11:11-12, 22, 33; 12:1, 12, 17, 24, 35, 38; 15:2, 34; 16:11, 14; 누가복음 4:1, 12, 14, 16, 23, 35, 41-43; 5:1, 3, 14, 31; 6:1, 12; 7:1, 10, 15; 8:30, 37-38, 40, 41, 45-46, 48, 50, 52, 54-56; 9:1, 11, 13, 18, 20; 10:21, 26, 28, 30, 37-38; 11:1, 14, 17, 28-29, 37; 13:12, 18; 14:3-4, 25; 15:3; 16:15; 17:11; 18:16, 31; 19:1, 9, 11, 28, 47-48; 20:34, 41, 45; 21:1, 5; 22:25, 39, 44, 46, 51; 23:43, 46; 24:36, 50; 요한복음 1:38-39, 48, 50; 2:4, 12; 3:3, 5, 10; 4:6, 10, 13, 21, 26, 35, 44-45; 5:1, 8, 17; 6:1, 3, 5, 10-12, 15, 32, 35, 42-43, 53, 59, 67, 70; 7:1, 6; 8:6, 11-12, 14, 19, 25, 31, 34, 42, 49, 54, 58-59; 9:1, 3, 35, 41; 10:6, 23, 25, 32; 11:4, 14, 17, 23, 33, 38-41; 12:1-2, 7, 12, 14, 17, 23, 30, 35, 37, 44; 13:1, 3, 8, 10, 21, 26-27, 30, 38; 14:9, 23; 16:31; 17:1; 18:1-2, 5, 8, 11, 20, 23, 34, 37; 19:5, 17, 30; 20:17, 19, 21, 29-30; 21:1, 5, 10, 12, 14, 17; 사도행전 9:19.

73) 누가복음 18:6; 로마서 9:28; 10:12; 14:9, 11; 고린도전서 14:21.

74) 마태복음 22:41; 누가복음 20:41; 로마서 6:9; 8:10; 14:15; 고린도전서 15:12.

75) 마태복음 17:26; 19:27; 26:33, 35; 요한복음 13:8, 31, 37-38; 19:6, 15, 22; 사도행전 5:3; 8:20; 10:47.

초기 한국 교회는 『구역』을 통하여 성경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명과 지명을 눈에 보기 쉽게 구분하도록 돕기 위하여 밑줄을 치는 배려를 해주었다. 이런 배려 덕분에 성경 지식에 낯설었던 초기 한국 교회는 비교적 덜 접하였던 그리스-로마 신화의 신들인 ‘히메’(행 14:12)와 ‘쓰스’(행 14:12-13; 19:35)도 『구역』에서 은유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비록 당시의 한국인들이 신화의 세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않았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헬라 철학파인 ‘에비구 레오’와 ‘스도이코’(행 17:18)는 아무런 설명 없이 『구역』에 거론되므로, 초기 한국 교회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와 사경회에 참여하는 일이 확산되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국역 성경의 농경 문화, 결혼 문화, 장례 문화, 한문 문화, 군사 문화, 생활 문화 등의 초기 한국 교회의 삶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던 당시의 성도에게 정서적으로 공감이가는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연구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당시 혈연 중심의 한국인에게 『구역』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해하여 성경의 세계상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초기 한국 교회가 한국인을 도와줘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데 기여한 점이 크다는 사실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가족에 관한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구역』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연구하였다.

76) 마태복음 27:13, 22, 65; 마가복음 15:9, 14; 요한복음 18:35, 37.

<주요어>

1911, 성경전서, 신약전서, 구약전서, 문화사, 초기 한국 교회, 하나님의 가족

<Key Words>

1911,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The New Testament in Korean(1911), The Old Testament in Korean(1911), Cultural History, Early Korean Church, *Familia Dei*

* 접수일 2010년 3월 11일, 수정일 2010년 3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0년 3월 31일

참고문헌

- 김민철, “벧새다 맏인 치유 이야기(막 8:22-26)에 대한 성서 신학과 현대의 학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0).
- 김인수, “미국 대각성 교회 운동과 한국 교회 1907년 대부흥 운동과의 비교 연구,” 『20세기 개신교 신앙부흥과 평양 대각성운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 김혜숙, “편집후기,” 「새가정」 54:588 (2007).
- 김혜숙, 『국역성서 연구: 번역사 및 국어학적인 고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4.
- 김혜숙, “국역성서 개역본에 있어서의 한자 사용에 대한 비판,” 「장신논단」 1 (1985), 1-54.
- 나채운, “국역성서 번역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교회와 신학」 4 (1971), 188-222.
- 민영진, 『국역성서 연구』, 서울: 성광사, 1984.
-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개신과 부흥, 토착 교회의 형성: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리더십: 제1, 2회 소망신학포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집위원회, 2006.
- 정길남, 『개화기 국역성서의 표기법과 문법형태』, 서울: 개문사, 1987.
- Baird, W. M.,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The Korea Mission Field* 3:5 (1907).
- Bernheisel, Charles F., *The Rev. Charles F. Bernheisel’s Missionary Diary*; 『편하설 목사의 선교일기』, 김인수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04.
- Best, E., *Following Jesus: Discipleship in the Gospel of Mark*, Sheffield: JSOT Press, 1981.
- Carr, David McLain, *From D to Q: A Study of Early Jewish Interpretations of Solomon’s Dream at Gibeon*,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Monograph Series 44, Atlanta: Scholars Press, 1991.
- Davies, W. D. and Allison, Dale C.,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ICC 3, Edinburgh: T & T Clark, 1988-1997.

Jeremias, Joachim, *Die Sprache des Lukasevangeliums: Redaktion und Tradition im Nicht-Markusstoff des dritten Evangelium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Kee, H. C., *Community of the New Age: Studies in Mark's Gospel*; 『새 시대의 共同體: 마가복음 연구』, 서중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Moore, J. Z., "The Great Revival Year," *The Korea Mission Field* 3:8 (1907).

Osiek, C. and D. L. Balch, *Families in the New Testament Worl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Swallen, W. L., "God's Work of Grace in Pyeng Yang Class," *The Korea Mission Field* 3:5 (1907).

<초록>

1911년 『성경전서』의 한국 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

소기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1911년 『성경전서』는 『신약전서』 1권과 『구약전서』 2권으로 발행된, 당시 대영성서공회가 최초로 성경 번역위원회를 조직하여 번역한 성경이다. 본 논문은 『신약전서』를 중심으로 초기 한국 교회의 문화사적 유산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역성경은 이미 19세기 말에 중국에서 번역된 로스 역인 『예수성교전서』가 출판되었지만 순수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본 논문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도태로 국역 성경의 농경 문화, 결혼 문화, 장례 문화, 한문 문화, 군사 문화, 생활 문화 등의 초기 한국 교회의 삶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던 당시의 성도에게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는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연구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당시 혈연 중심의 한국인에게 『성경전서』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해하여 성경의 세계상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초기 한국 교회가 한국인을 도와줘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데 기여한 점이 크다는 사실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가족에 관한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성경전서』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연구했다.

<Abstract>

A Study of Korean Cultural Historical Heritage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Prof., Ky-Chun So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published in 1911 was the first Bible that the British Bible Society in Korea established an biblical translation committee and translated into Korean with two volumes of *the Old Testament in Korean*(1911) and one volume of *the New Testament in Korean*(1911). This paper focused on studying of Korean some cultural historical heritages of early Korean churches on the bases of the New Testament. In spite of publishing the Ross translation, *the Jesus Holy Bible*, in China at the end of 19th century,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is highly recognized in a cultural historical value, because it was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Bible by Korean Bible Society. This paper studied some agricultural heritages, marriage cultures, Chines character cultures, military cultures, and natural cultures with various ways in which early Korean churches experienced all over the life styles and many church members of them deeply sympathized due to they are speaking in Korean. This paper also studied some facts that early Korean churches helped to lead many Koreans accepted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without any negative feeling, since Koreans live together in one racial tradition since, and built the foundation of Christianity in Korea in order to reach an biblical world view. Finally, This paper studied some facts that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contributed building some unity of one faith community in fami-

lia dei because it was interested in Korean unique feelings that the Bible theologically expressed people and family.